

11/1(월) 욥기 묵상 13

욥기 6:24-7:6

말씀 읽기와 묵상 - 오늘 본문을 읽거나 들으시고 먼저 말씀을 3분 정도 침묵 가운데 개인적으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욥은 자신의 고난을 정죄하는 친구들에게 답답함을 호소하면서 엘리바스의 조언과는 달리 대답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욥의 답답함

욥은 엘리바스에게 그가 자신의 허물을 깨닫게 한다면 입을 다물겠노라고 대답합니다(24절,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욥은 친구들의 말이 고통스럽게 느껴질 뿐입니다(25-26절,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우며,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나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욥은 친구들이 자신의 사정을 이해하고 위로하기보다는 자신을 책망할 생각을 먼저 하는 것에 대해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사실 욥에게 있어 지금 필요한 것은 고난에 대한 분석보다는 이해와 위로입니다. 하지만 친구들의 잘못은 동정 없는 훈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이웃 사랑에 관한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마 22:37-39,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예수님은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데 있어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이는 자신이 타인으로부터 이해를 받고 사랑받고 싶은대로 상대방을 똑같이 대하고자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보통 내 생각대로 상대방을 이해하고 내 방식대로 상대방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온전한 이해와 사랑으로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에 욥은 친구들에게 서운한 속내를 드러낸 것입니다(27절,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친구를 팔아 넘기는구나.**”). 이는 마치 창세기 37장 이후에 나오는 요셉을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애굽으로 팔아버린 매정한 요셉의 형들의 모습을 생각나게 합니다. 당시에 요셉은 아버지의 부탁을 받고 형들에게 방문했다가 이런 봉변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욥도 친구들에게 큰 상처를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욥은 자신의 친구들을 형제로 여길 만큼 가까운 사이였기 때문입니다(욥 6:15, “**내 형제들은 개울과 같이 번덕스럽고 그들은 개울의 물살 같이 지나가누나.**”). 그러자 욥은 이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을 넘어서 친구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반격하기 시작합니다(29절,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니 돌아오라.**”). 여기서 ‘돌이키다’는 것은 사람의 시각과 태도의 변화가 동반된 총체적인 돌아섬을 의미합니다. 양측의 주장이 팽팽한 상태에서 욥은 친구들에게 누가 더 옳은 지 논쟁을 벌이자고 제안하고 있습니다(30절,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랴 내 미각이 어찌 속임을 분간하지 못하랴**”).

인생의 허무함

욥은 먼저 일반적인 차원에서 인생의 허무함을 탄식하기 시작합니다(7:1-2,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의 삶을 기다리나니**”). 욥은 인생을 ‘힘든 노동’에 비유하면서 이 땅에 사는 인간을 ‘종’ 그리고 ‘품꾼’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유일한 낙은 노동을 마치고 난 다음 저녁 시간에 그늘에서 누리는 짧은 휴식

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옴의 탄식은 자기 자신에게로 옮겨지고 있습니다(3-4절,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걱정되었구나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같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옴의 고통은 그의 삶의 균형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평안한 안식의 시간이 되어야 할 밤이 그에게는 고통의 시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옴에게는 그 어느 시간도 평안한 순간이 없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의 피부에 난 질병 때문이었습니다(5절,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 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이 병이 무엇인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학자들은 그 증상을 볼 때 문둥병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문둥병은 완전히 낫지 않고 불치의 상태에서 호전과 악화의 과정을 끝없이 반복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옴의 날은 허무하게도 빨리 흘러갑니다(6절, “**나의 날은 베틀의 복보다 빠르니 희망없이 보내는구나.**”). 여기서 옷감을 짜는 ‘베틀의 복’이 언급되는 것은 옷감을 짜는 베틀의 복과 같이 옴의 삶도 이리저리 빨리 움직여 조금 있으면 옷감이 다 짜이게 되는 것처럼 그의 인생도 희망없이 끝나고 말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는 고난 속에서 삶의 본질에 대한 의미를 질문하고 추구하게 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의 소유와 세상의 자리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진 것들은 있다가도 사라질 수 있는 유한한 것들입니다. 또 우리는 이 땅에서 아무리 부유하고 넉넉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모두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이 땅에 두고 이 세상을 떠나가게 될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유물에 우리의 기대와 소망을 두어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그보다 더 본질적인 것에 우리의 영적인 기초를 세워야 할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인 기형으로 팔다리가 없이 태어난 닉 부이치치는 정상인 사람들에게 강연과 책으로 희망을 전하는 희망의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환경을 탓하는 것만큼 나쁜 것은 없다고 강조하면서 일반인도 하기 어려운 수많은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기독교인으로서 미국에서 거의 허용되고 있는 낙태 근절 운동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습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주신 소중한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번 한 주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가진 소유보다는 존재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귀한 한 주가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적용 - 오늘 묵상을 통해 성령님께서 내게 깨닫게 하시고 다짐하도록 해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다짐과 기도제목

- 1. 적용의 기도:** 오늘 묵상을 통해 내게 주시는 말씀을 개인의 신앙과 삶에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
- 2. 전세계를 위한 기도:** 유엔 식량기구인 세계식량계획(WFP)의 수장은 예멘 총인구 2,900 여만 명 중, 1,600 만 명이 굶주림의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국제 사회에 식량 원조를 적극 요청하였다. 또한 유니세프(UNICEF)의 헨리에타 포어(Henrietta Fore) 대표는 230 만 명의 5세 이하 예멘 어린이들이 극심한 영양실조 가운데 있으며, 10분당 한 명의 어린이들이 백신으로 예방가능한 질병으로 사망하고 있다고 상황을 전했다. 예멘의 기아 상황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이 국제 사회와 선진국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무엇보다도 근본적인 문제인 내전이 속히 멈출 수 있도록 기도하자.
- 3. 교회를 위한 기도:** 우리 교회에 속한 브랜포드 2 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 4. 선교지를 위한 기도:** 콜럼버스하우스(뉴헤이븐)를 위해서 중보합니다.